

연예종합

# 탑 “포화속으로” 갔더니 꿈이 됐다

관객 300만명 돌파속 연기력 인정 차승원·김승우도 ‘탑이 주연’ 칭찬 가수 출신 배우 흥행 부진 징크스 깨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영화 ‘포화속으로’ 출연을 결심했을 때 목표가 이루어진 것 같다.” 인기 그룹 빅뱅의 탑이 6월 말 ‘포화속으로’의 블로그에 남긴 글 가운데 일부다. 그는 이 글에서 “영화 속 캐릭터를 맡고 촬영에 임한 기간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든 시기였다”고 돌아보면서 “젊은 관객들이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게 된 걸 확인했다”면서 고마움과 스스

로 뿌듯함을 표했다.

탑은 ‘포화속으로’의 크레딧에 본명인 ‘최승현’과 예명인 탑을 함께 올렸다. 그만큼 연기자로서 확고한 위상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아이리스’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동의 영역을 넓혔지만 그는 “아직 뭔가를 잘 모를 때”였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주연한 영화 ‘포화속으로’가 11일 현재까지 전국 301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탑은 이제 어엿한 스크린 주역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알리게 됐다. 블로그의 글이 아니더라도 영화 개봉에 앞서 탑은 인터뷰를 통해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탑은 그동안 가수 출신 연기자들이 스크린에서 흥행의 단맛을 본 적이 드

물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수 출신으로 영화를 통해 관객을 만난 스타급 연기자들이 대부분 흥행 부진의 성적표를 안았던 데 비해 탑의 첫 스크린 주연작의 성공은 곧 그 자신의 승리이기도 하다.

특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안정된 연기력은 또 다른 스크린 주역으로서 그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 있다. 권상우와 차승원, 김승우 등 ‘포화속으로’에서 함께 주연한 배우들조차 “탑이 주연”이라고 말할 만큼 자신의 극중 임무를 완수해줬다는 평가다.

탑은 ‘포화속으로’에서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포항 사수의 임무를 떠안게 된 학도병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최근에는 디지털 싱글을 내놓고 다시 가수의 자리로 돌아갔다.



가수 출신 배우의 흥행 부진 징크스를 털어낸 빅뱅의 탑 주연 영화 ‘포화속으로’가 전국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해 승승장구 중이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 ‘민들레’ 김동욱, 연기도 학업도 A+ 한예중 우수학생에 뽑혀 장학금… “소문난 모범생”



우수학생으로 뽑힌 김동욱(왼쪽)이 9월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게 장학금을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예술종합학교

MBC 주말드라마 ‘민들레가족’에 출연 중인 배우 김동욱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에서 우수 학생으로 뽑혔다.

김동욱은 9월 한예중에서 선정한 상반기 우수학생에 뽑혀 박종원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았다. 한예중 연극원 연기와 4학년인 김동욱은 현재 학업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2010년 들어서만 영화 ‘반가운 살인자’, 드라마 ‘민들레가족’,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등에 출연하며 다양한 작품 경험을 쌓았다.

2월에는 제7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최고의 남자 신인배우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영화 ‘국가대표’로 제12회 디렉터스 컷 시상식 올해의 신인 연기자상과 제17회 이천 춘사대상영화제 공동연기상을 수상해 학교를 빛낸 상반기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예중 측은 “규정상 1, 2, 3학년 학생들은 학업과 연예 활동을 병행할 수 없다. 수업에 3번 불참하면 F를 받을 정도로 학점에 상당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학업과 학업의 병행이 힘들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휴학을 하거나, 연예 활동을 위해 자퇴를 한다. 하지만 김동욱은 4학년 1학기 재학 중으로 학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고, 졸업 작품에도 열심히 임해 ‘연기과외의 모범생’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예중에 입학했던 장동건과 이소연, 가수 태권 등 많은 연예인들은 활동을 위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욱의 소속사 관계자는 “그도 역시 활동을 위해 휴학을 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무사히 학업을 이수해 졸업을 한 학기를 남겨두게 됐다. 다행히 지난 학기에 학점 이수를 모두 마쳐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 ‘1인 기획사’ 황정민 뮤지컬 만든다

‘년센세이션’ 제작 맡아 국내 첫 선



의 한 측근에 따르면 뮤지컬, 무비(영화), 매니지먼트의 첫 글자 영문인 3M을 인용해 샘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측근은 “황정민이 평소 뮤지컬, 연극 등 공연 기획에 관심이 많았다”며 “특히 뮤지컬은 그에게 고향과 같은 존재라 애정이 많이 갔다. 이번에 제작을 맡으면서 팬들에게 공개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민은 2월 대안원의 막을 내린 뮤지컬 ‘웨딩싱어’에 출연해 티켓파워를 과시했다. 그는 이전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모스키토 캣츠’, ‘브로드웨이 42번가’, ‘나인’ 등 7여 편에 출연하며 뮤지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다.

황정민은 최근 1인 기획사를 설립할 때도 뮤지컬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황정민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폭행 최철호 ‘동이’ 하차 손일권은 “책임 느끼지만…”



도 함께 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공개된 CCTV 동영상에서 손일권은 최철호가 여성을 폭행할 때 말리지 않았고, 폭행당한 여성이 손일권에 도움을 청했지만 머뭇거리며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동이” 관계자는 “손일권이 최철호의 부하로 출연했던 만큼 그의 분량 역시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극 전개 정황상 출연 분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모습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손일권의 소속사 측은 “제작진으로부터 역할 변화나 분량에 대해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 하지만 이 일에 책임을 느끼고 있어 하차를 할 생각은 없지만 분량이 줄어들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윤주희 색시&삼금 6월 중영한 KBS 2TV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에서 매력적인 여검사로 관심을 모은 윤주희가 가슴골이 드러난 의상을 입은 채 색시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최근 필리핀 세부에서 촬영한 화보에서 윤주희는 비키니와 런제리 룩 등을 소화했다. 사진제공 | 올리뷰브

## 연예 뉴스 스테이션

### 박은혜,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 홍보대사에 위촉

박은혜가 12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는 스위스의 비영리 재단인 뉴세븐원더스가 주관하는 행사. 인터넷 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7곳을 골라 2011년 11월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박은혜는 “제주도를 좋아해 외국인들을 만날 때 꼭 가보라고 권해왔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다면 기쁠 것 같다.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혜가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웰컴센터에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감동을 들인 웃을 입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제주 | 연합뉴스

### 이완, 현역 입대 “김태희 누나 사인으로 사랑 받을거예요”

연기자 이완이 12일 현역으로 종남 눈산훈련소에 입소했다. 이완은 이날 훈련소 입소 전 “중학교 이후 이렇게 짧은 머리는 처음인데 편하다.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군 생활 잘 하고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완은 이어 “누나(김태희)에게 면회 오라고 하고, 사인도 받아 선임들에게 예뻐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BS 수목드라마 ‘나쁜남자’에 출연 중인 배우 김남길도 15일 훈련소에 입소해 4주 간의 군사기초훈련을 마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다.

### 이범수, 결혼 축의금 전액 다문화 가족 위해 기부

5월 결혼한 이범수가 결혼 축의금 전액을 다문화 가족을 위해 기부했다. 소속사 측은 12일 “이범수가 최근 전국다문화가족지원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 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찾았다는 이범수는 “평소 관심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위해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정겨운, SBS 월화드라마 ‘닥터 챔프’ 주인공

연기자 정겨운이 SBS 월화드라마 ‘닥터 챔프’의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닥터 챔프’는 태릉선수촌을 배경으로 국가대표 선수들과 담당 주치의 간의 갈등과 화해, 우정을 담은 스포츠 메디컬 드라마. 정겨운은 부상에 시달리는 국가대표 유도선수 박지현 역을 맡았다. 2008년 KBS 드라마 ‘태양의 여자’에서 유도선수로 출연했던 정겨운은 “유도의 비중이 전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현중 떠난 SS501, 대만서 인기 과시

김현중의 소속사 이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그룹 SS501이 대만에서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소속사 DSP미디어 측은 12일 “6월26일 대만에서 발표된 SS501의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이 지-뮤직과 파이브 뮤직, 팡난 등 현지 3대 음반판매 집계차트에서 1~2위에 오르는 등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S501 멤버들은 최근 DSP미디어와 전속 계약이 만료돼 활동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김현중은 배용준의 소속사 카이스트와 계약했고, 다른 멤버들도 개별적으로 다른 기획사의 이적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 내달 서울부터…재범, 아시아 팬미팅투어

영화 출연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그룹 2PM의 전 멤버 재범이 본업인 가수로서 앨범 발표에 이어 아시아 팬미팅을 여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한국비하발언의 여파로 미국으로 떠난데 이어 2PM 자진 탈퇴, 최근 영화 촬영차 귀국하기까지 가요계의 핫이슈로서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합작영화인 ‘하이프 네이션’ 촬영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그가 아시

아 차게 내놓은 계획은 아시아 팬미팅. 재범은 12일 해외 에이전트인 틴저 서먼을 통해 8월28일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팬미팅을 열고, 이후 대만의 타이베이, 중국의 상하이,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을 잇는 아시아 팬미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팬미팅에 대해 재범 측은 팬들로 인해 컴백을 할 수 있었던 그에 대한 고마움과 보답의 차임이라는 설명과 합

## 사이더스HQ와 협상 소속사 곧 결정 음반 ‘민어줄래’도 주문 폭주 호응

깨 북미 지역으로 투어 확장도 고려 중임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재범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체육관에서 팬미팅을 열고, 이후 대만의 타이베이, 중국의 상하이,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을 잇는 아시아 팬미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팬미팅에 대해 재범 측은 팬들로 인해 컴백을 할 수 있었던 그에 대한 고마움과 보답의 차임이라는 설명과 합



8월28일 서울 고려대에서 열리는 팬미팅을 시작으로 아시아 팬미팅에 나서는 2PM의 전 멤버 재범.

정될 조짐. 이미 국내 유력 연예기획사인 사이더스HQ가 재범과 국내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놓고 협의 중임을 공표하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민병 기자 justin@donga.com